

송순 시가의 장소성에 대한 일고찰

-자연시를 중심으로-

김은희*

|| 차례 ||

- I. 머리말
- II. 송순의 삶과 경험, 그리고 장소성
 - 1. 삶의 의지처-담양
 - 2. 자기응시와 평정심의 회복-면양정
- III. 여유와 달관, 자공과 眞樂-〈면양정가〉의 자연
- IV.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송순 삶의 주요국면 및 체험들을 중심으로 개인적 경험에 대한 그의 문학적 반응으로서의 詩歌, 담양과 ‘면양정’이라는 특정장소에 대한 송순의 인식과 그 의미, 나아가 그 총체로서 ‘자연’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담양과 ‘면양정’은 한양 체험 즉 부조리와 불안, 반감과 분노로 힘겨울 때 돌아와, 자공심과 평정심을 회복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획득하며 나아가 그의 이상적 지향인 眞樂에 도달하는 의지처였다. 평생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부당한 정치현실에 휩쓸리지 않았던 것은 ‘담양’ ‘면양정’ ‘자연’이 있어 가능하였다. 송순에게 자연은 탈속의 지향점이나 이상향이라기보다 구체적 삶의 공간이었다. ‘담양’과 ‘면양정’은 사대부로서의 이념지향과 의식지향을 실현시켜주는 장소로서 그의 삶과 체험이 녹아있어 그 곳에서 산출된 한시·시조·가사는 그의 문학세계의 정점을 이루고 있다. 송순문학에 드러났던 사립들에게 정치적 암투나 정쟁의 희생과 관련 없는 순수한 자연애와 동료애로 교류할 수 있는 장소성을 지닌 곳으로서 호남가단을 이루는 시발점이 되었다.

* 덕성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특히 ‘면양정’은 30년에 걸친 송순의 지극한 애정이 결실을 맺은 곳, 그가 꿈꾼 소망의 장소, 부정적 정치현실로 인한 상처를 위로하고 자기 응시를 통한 평정심 회복의 의미를 지닌 장소이다. 송순 자연미학의 극치인 <면양정가>에 이르면 불안도 회의도 좌절도 없는 절대조화의 자연세계가 펼쳐지며, 송순 장소감으로서의 ‘자연’이 정점에 도달한다. <면양정가>의 ‘자연’은 자기응시 끝에 도달한 自樂의 경지, 여유와 달관, 자금과 眞樂의 경지인 것이다. 오랜 기간 사람들에게 회자 되는 그의 은근한 절개와 성품에 대한 예찬은 ‘담양’과 ‘면양정’이 있음으로 가능하였다. 고통에 처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을 때, 돌아올 귀의처(마음의 의지처)로서 ‘담양’과 ‘면양정’ 그 모든 것의 정점인 ‘자연’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주제어 : 장소성, 담양, 면양정, 자연, 삶의 의지처, 자기응시, 평정심의 회복, 여유, 달관, 자금, 自樂

I. 머리말

기존 논의에 의하면 송순 문학은 ‘담양’ 지역을 기반으로 형성되었으며 ‘면양정’이라는 장소체험에 의해 확대되고 완성되었다. 호남가단을 처음 마련한 사람¹⁾으로 평가되는 송순은 벼슬길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생애를 보냈던 ‘담양’을 빼고는 논의가 불가능한 시인이다. ‘담양’과 ‘면양

1)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2, 지식산업사, 1986, p.330. 기존연구에서 송순은 생애 및 문학전반의 면모와 위상, 그 시학적 특성에 이르기까지 잘 정리되어 있다. 참고한 주요 논의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이종건, 『면양정 송순 연구』, 개문사, 1983 ; 김학성, 『송순 시가의 시학적 특성』, 『한국고시가의 거시적 탐구』, 집문당, 1997, pp.433~450 ; 최한선, 『면양정 송순의 한시』, 『고시가 연구』, 한국고시기문학회, 1997, pp.107~135 ; 성기욱, 『宋純의 시조 한 수가 들려주는 시의 꿈 하나』, 『시안』 제2권, 1998. 12, pp.61~77 ; 김성기, 『면양송순시문학연구』, 국학자료원, 1998 ; 김학성, 『면양정 송순 시조의 미학적 성취와 그 가치』, 『한국고전시가의 전통과 계승』, 성대 출판부, 2009, pp.45~71 ; 최상은, 『송순의 꿈과 <면양정가>의 흥취』, 『제13회 전국가시문학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2012. 11, pp.9~27.

정'은 고전시가사에서 호남사림의 근거지이자 중심지로서 그 문학적 성취를 이루었던 장소로 자리매김 되고 있으며, 특히 자연시 혹은 강호시와 관련하여 송순의 체험과 인식이 반영된 장소로서 그 의미는 각별하다. 특히 한시와 가사를 짓고 시조도 즐기는 동안 주위에 많은 문인들이 모여들어, 자기 당대에 가단을 이루어 함께 읊조리는 동안에 직접 영향을 주었다²⁾는 점에서 '담양'이라는 장소 체험과 그 의미를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송순 시가 중에는 현실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을 형상화한 작품들도 있지만 송순 문학의 정점이자 그 성가를 높여준 것은 강호 생활의 즐거움을 노래한 작품들이며, 특히 '담양', '면양정' 등의 장소와 자연을 형상화한 작품들은 작가의식과 그 의미에 있어서, 송순의 실존 중에서 보다 근원적인 이상적 삶, 친밀하고 안정적인 삶의 방향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담양', '면양정'에 대한 송순 개인의 고유한 경험과 의식을 들여다보고 그 의미를 찾아보려 한다. 이는 작품 속의 장소는 그곳을 선택하여 문학적으로 재단(형상화)한 작가의식의 반영이며, 당대 사회나 문화적 특성의 반영이기도 하다³⁾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따라서 송순작품에서 '담양', '면양정'은 문학적 '배경'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작품의 핵심적 요소, 작품의 주제를 드러내기 위한 상징적 장치로서 재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 당연시되었던 송순의 풍류정신, 혹은 풍류의 생활화라는 평가에 대한 '장소' 중심의 접근을 목표로 한다.

또한 송순작품에는 특정시대(16세기, 사화기), 특정지역(담양)에 살고 있던 특정집단(호남사림)의 심상이 투영되어 있다⁴⁾고 보고, 그 실체가 무

2) 조동일, 위의 책, p.331.

3) 김수경, 「'장소'로 본 옥곡재 가사 작품」, 『한국 고전시가의 장소성 탐색』, 2012 한국 시가학회 전국학술대회, 2012. 11. 24. p.68.

4) 김창원, 「〈關東別曲〉의 관찰사 여정과 심상지리」, 『한국시가연구』 27집, 한국시가학회, 2009. 11, pp.131~132에서 '심상지도'라는 말 사용, "'심상지도'란 장소에 대한 이미지를 지도로 표현한 것으로, 어떤 사람이 장소에 대하여 알고 있는 지식은 물론,

엇인지, 즉 ‘담양’ ‘면양정’이라는 특정장소에 대한 송순의 인식을, 나아가 그 총체로서 ‘자연’의 의미를 살피고자 한다. 특히 송순작품이 삶의 직접적 표현임에 주목한다. 따라서 작품을 볼 때, 전기적 사실과 관련시켜 보아야 하는 바, 시의 내용이 상투적 허세의 몸짓이 아니라 모두가 사실에 입각한 진술이라는 것, 심경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 작품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

따라서 이 글은 새로운 내용의 추구라기보다는 송순 삶의 주요 국면 및 체험들을 중심으로 개인적 경험에 대한 그의 문학적 반응으로서의 詩歌, ‘담양’과 ‘면양정’이라는 특정장소에 대한 인식과 그 의미, 나아가 그 총체로서의 ‘자연’의 의미를 재정리함으로써 송순 문학세계에 대한 관심을 확대 하려는 것이다.

II. 송순의 삶과 경험, 그리고 장소성

먼저 송순이 정치적 박해를 피해 기후 좋고 물산이 풍부한 남쪽으로 와 자리 잡은 재지사족의 후예로서 호남사람이라는 점, 사회기라는 갈등의 시대에 중앙에서 벼슬하기도 하였으나, 지방의 향리(담양)에서 강호의 삶을 살기도 하였다는 사실⁵⁾은 송순문학 이해에 전제로서 중요하다. 또한 성종 때 태어나 다섯 왕⁶⁾을 섬겼고, 한 번의 유배와 몇 번의 파직을 겪었지만

장소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고 있는 지가 나타난다.”고 언급하고 있는 바, 송순의 경우, 심상지도라기 보다는 담양과 면양정이라는 특정장소에 대한 심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5) 김학성, 「송순 시가의 시학적 특성」, 『한국고시가의 거시적 탐구』, 집문당, 1997, pp.434~435 참고. 이 글에서는 송순 문학의 시대적·계층적·지역적 기반 및 사상적·이념적 특징, 그리고 스승·교우관계 등 텍스트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어 송순 문학 이해에 큰 참고가 된다.

6) 엄밀하게는 성종, 연산군, 중종, 인종, 명종, 선조 중에서 주로 ‘중종, 명종, 선조’의 세 임금에 섬긴 것이다.

정치적 혼란기에 50여년의 벼슬살이를 큰 무리 없이 살아 내었고, 90세로 장수하는 등 비교적 순탄한 생애를 살았다고 하는 평가도 그러하다.

그의 생애를 살았던 장소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는 21세(중종 8, 1513)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24세(중종 11, 1516)에 성균관에 유학하기까지 24년 동안, 고향인 ‘담양에서 출생, 성장, 수학하였다. 이후 己卯士禍가 일어났던 27세(중종 14, 1519)에 별시에 합격, 과거에 급제하고 벼슬하기까지 약 7년을 ‘서울’에서 지내게 된다. 30세(중종 17, 1522) 봄,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오지만, 이듬해(31세) 예문관 奉敎가 되어 서울에 갔다가, 8월 아버지의 죽음으로 다시 ‘담양으로 돌아와 33세(중종 20, 1525)까지 삼년상을 마치고, 세자시강원 說書에 제수된 이후, 홍문관 수찬, 사간원 정언, 병조좌랑, 홍문관 등 여러 벼슬과 겸직을 하면서 조정의 기대를 받으며 서울에서 2년여의 시간을 지내게 된다. 중요한 사실은 32세(중종 19, 1524) 때, 면양정 터를 매입하였다는 것이다. 이후 거의 매년 어머니를 뵈러 ‘담양’에 다니면서도 여러 벼슬을 두루 하면서 40세까지 서울에서 6년 정도를 머무른다. 41세(중종 28, 1533)에 김안로의 횡포를 지적한 후, ‘담양으로 돌아와 면양정을 창축하고 삼언시를 짓는다. 이후 약4년 동안 ‘담양에 살면서 어머니를 봉양하여 여생을 마칠 생각을 한다. 45세(중종 32, 1537)에 김안로가 사약을 받으면서 홍문관 부응교로 발령을 받아(46세 때, 충청도 어시를 잠깐 함) 약 3년간 서울에 머무른다. 48세(중종 35, 1540)에는 지방 외직으로 경상도 관찰사를, 49세에는 다시 내직으로 사간원 대사헌까지 지내면서 윤원형 일파인 황헌을 논박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50세(중종 37, 1542)에 내직에서 쫓겨나 외직인 전라도 관찰사를 하면서 양산보가 소쇄원 건축하는 것을 돕는다. 51세 때, 질병으로 인하여 ‘담양’으로 돌아온 후, 한성부 우윤에 제수되었으나 어머니 봉양을 위해 외직을 자원, 광주 목사를 한다. 52세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53세(인종 원년, 1545)에 乙巳士禍를 겪으면서 어머니 삼년상을 치르며 ‘담양’에서 지낸다. 55세(명종 2,

1547)에 어머니 탈상 후, 동지중추부사로 복귀 서울에서 1년을 보내고, 다시 외직 개성부유수로 2년을 보낸 후, 대사헌→이조참판으로 복귀하지만 58세에 허자에게 어진 선비를 등용할 것을 권고하다가 당시 세력가에게 미움을 받아 진복창이 이기와 음모를 꾸며 선생을 귀양(2년) 가게 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60세(명종 7, 1552)에 외직인 선산도호부사로 강등되고, 담양부사 오겸의 권유로 면양정을 손질한다. 66세에는 전주 부윤에 제수되는 등 외직으로 거의 7년을 보낸다. 68세(명종 16, 1561)에 신병으로 사직서를 올리고 고향인 ‘담양’에 돌아온다. 69세에 외직 나주목사에 제수되어 약 7년을 보낸다. 76세(선조 원년, 1568)에 한성부 판윤, 의정부 우참찬 겸 지춘추관사로 서울에서 2년쯤 보낸 후, 77세(선조 2, 1569)부터 90세 죽을 때까지 14년 여생을 ‘담양’에서 보낸다.⁷⁾

간략하게 살펴 본 송순의 생애는 담양(24년)→서울(7년)→담양(3년)→서울(7년)→담양(4년)→서울(3년)→외직(1년, 경상도관찰사)→서울(1년)→외직(1년, 전라도관찰사)→외직(1년, 광주목사)→담양(3년)→서울(1년)→외직(2년)→서울(1년)→유배(2년)→외직(7년, 선산도호부사)→담양/외직(7년, 나주목사)→서울(2년)→담양(14년)으로 주로 ‘담양’과 ‘서울’을 오가면서 지냈고, 내·외직을 오고 가는 바, 외직은 쫓김을 당하기도 하고 어머니 봉양을 위해 자원하기도 한다. 생애 반이 넘는 48년 이상을 ‘담양’에서, 약 22년 정도는 ‘한양’에서, 유배 2년에 외직으로 19년 정도를 보낸다. 한양이나 외직에 있을 때도 수시로 ‘담양’에 들러 어머니를 돌보곤 하였는데 그만큼 ‘담양’은 송순 삶에 있어 특별한 의미를 지닌 ‘장소’인 것이다.

움직임이며, 개방이며, 자유이며, 위협인 공간과 달리 장소는 정지(멈춤)이며, 개인들이 부여하는 가치들의 안식처이며, 안전과 애정을 느낄 수 있

7) 김성기, 『면양송순시문학연구』, 국학자료원, 1998, pp.415~446에서 『면양집』 연보를 요약한 「議政府 右參贊, 倂仰 先生 年譜」에 의하여 정리.

는 고요한 중심이다. 인간은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하며,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미지의 공간은 친밀한 장소로 바뀐다. 즉 낮은 추상적 공간은 의미로 가득 찬 구체적 장소가 된다. 어떤 지역이 친밀한 장소로 다가올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지역에 대한 느낌(또는 의식), 즉 장소감을 가지게 된다.⁸⁾

추상적·물리적인 ‘공간’이 문화적이거나 지역적인 것을 기반으로 나타나는 맥락적 의미를 담게 됨으로써 ‘장소’가 되는 것이다. 추상적인 특징을 지닌 공간이 장소로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공간에 대한 인간의 체험이나 인간의 이상적 현실적 의도를 필요로 한다. 즉 인간이 어떠한 태도나 가치를 투사함으로써 공간이 사람들의 특정한 의도나 요구에 따라 안전하거나 위험한, 혹은 편안하거나 불편한 장소가 되는 것이다. ‘장소란 의미가 부여된 공간이다’라는 말은 이러한 뜻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인간은 체험을 통해 어떠한 공간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것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장소가 만들어지는 것이다.⁹⁾

문학작품에서 장소는 작가가 선택한 의미 있는 구체적인 곳으로서 그가 지향하거나 애정을 가진 곳일 수 있다. 그것이 어떤 곳이든 실재하는 지리적·물리적 공간 그 자체는 아니다. 즉 물리적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추상적이고 생소한 곳이 공간이라면 인간의 경험과 의식, 그리고 생활이 뿌리 내리고 있는 곳이 장소이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고, 자라고, 지금도 살고 있는, 또는 특히 감동적인 경험을 가졌던 장소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으며 그 장소를 의식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가 개인의 정체성과 문화적 정체성, 그리고 안정감의 근원이자, 우리가 세계 속에서 우리 자신을 외부로 지향시키는 출발점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¹⁰⁾

8) 이-푸 투한, 구동희·심승희 옮김, 『공간과 장소』, 대운, 1994, pp.7~8.

9) 김수경, 앞의 책, p.70.

10) 에드워드 렐프, 김덕현 외 옮김,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p.104.

인간답다는 것은 의미 있는 장소로 가득한 세상에서 산다는 것이다. 인간답다는 말은 곧 자신의 장소를 가지고 있으며 잘 알고 있다는 뜻이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장소’는 인간실존이 외부와 맺는 유대를 드러내는 동시에 인간의 자유와 실재성의 깊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인간을 위치시킨다”고 주장했다. 인간이 세계를 경험하는 심오하고도 복잡한 측면이 장소인 것이다.¹¹⁾ 친밀하고 의미 있는 장소를 갖는 것은 인간다운 삶의 필수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진정한 장소감은 개인의 정체성에 중요한 원천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공동체에 대해서도 정체감의 원천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인간실존의 중요한 양식이기 때문이다.¹²⁾

송순은 자신에게 친밀하고 의미 있는 장소인 ‘담양’, ‘면양정’, 그리고 이러한 장소체험에 의해 승화된 이상향으로서 ‘자연’을 가진 작가였다. 이는 송순이 16세기 호남사림으로서 인간다운 삶의 필수조건을 갖추고 살았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장소성¹³⁾은 송순 개인의 정체성에 중요한 원천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유가적 사대부, 호남사림이라는 공동체에 대해서도 정체감의 원천을 제공함으로써 호남사림의 선구자로 우뚝 서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송순은 ‘담양’에서 당시 최고의 학자들인 박상, 박우, 송흠, 송세립 등 山林을 스승으로 모시고 수학하였으니, 이들은 그의 학문적·사회적·예술적 뿌리라고 할 수 있다. 50여년 벼슬살이에서 겪은 몇 번의 파직과 유배의 고통 속에서도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부당한 정치현실에 휩쓸리지 않았던 것은 ‘담양’에서 이루어진 이들의 가르침, 특히 그가 평생 삶의 철학으로 삼았던 ‘敬과 直’은 스승인 박상으로부터 받은 가르침에 의한 것이었음은

11) 에드워드 렐프, 앞의 책, p.25.

12) 에드워드 렐프, 앞의 책, p.150.

13) 장소성(placeness)-장소에 대한 개인의 독특한 경험과 그것으로 인지된 특성, 앞의 책, p.67.

주지의 사실이다. 37세 때 쓴 것으로 알려진 <上訥齋朴先生書>에 보면

…先生嘗言爲學之方惟在敬直二字上 治心以敬 處事以直 純聞卽悚然 猶恐不體先生之訓 以二字符佩于胸中…蓋處事而未直者 由於治心之功未至也…苟能敬以直內則執事亦敬也 何有執事敬而未直者乎…敬固治心之方而心既主敬 則未有處事而不敬者也 直固處事之要 而事既從直則未有不本於吾心之直也(下略)¹⁴⁾

라 하였으니 박상은 면앙정에게 敬과 直을 학문하는 방법으로 삼으라고 일렀던 것이다. 남을 다스릴 때는 마음에서 敬으로써 하고(治心以敬), 일을 처리할 때는 直으로써 하라(處事以直)고 한 것이다. 이후 면앙정은 敬과 直을 마음에 깊이 새겼으니 평생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부당한 정치현실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게 한 지침이 된 것이다. 나아가 直과 敬의 구분 때문에 나타나는 폐단을 깨닫고 궁극에는 治心에도, 處事에도 敬과 直 모두가 담겨있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敬과 直이 둘이 아님에 결국 直하게 하려면 敬을 간직하고 있어야 하는 ‘敬直互換說’에 도달, 세상 이치를 보는 일관된 태도를 보인다. 분리하고 떼어놓아 생각하는 입장이 아니라 모으고 종합하여 일치시킴으로써 모든 것에 적용되는 진리를 얻어내는 것이 그것이다. 이처럼 송순의 삶은 평생 敬과 直의 조화로운 효용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스승의 가르침은 송순으로 하여금 修己治人の 중심이 곧 敬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였으며 따라서 敬을 가장 중히 여기는 삶을 살게 하였다. 이는 그의 시가들에 드러나는 부끄럼 없는 떳떳한 삶에 대한 의지의 원천이 되었으며, 그의 생활을 진실하고 中節에 맞게 살도록 함으로써 士禍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安身과 長壽의 多福을 누렸던 것¹⁵⁾이라 본다.

14) 『俛仰續集』, 卷之二, 書, <上訥齋朴先生書> a_026_336c, 한국고전종합DB, 한국고전번역원.

송순의 친구는 깊고 얇은 마음을 모두 알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를 존경하고 따랐던 후배는 평생 그를 저버리지 않았다. 이러한 친구와 후배는 80여명¹⁶⁾에 달한다. 이들 중 이름이 알려진 이는 신광한, 성수침, 나세찬, 이황, 김인후, 임형수, 노진, 박순, 기대승, 고경명, 정철, 임제 등이다. 이 밖에도 태인의 송세림, 송세형 형제, 박상 밑에서 함께 공부한 정만중, 담양 사람이었던 윤순, 신잡, 김약회, 윤구, 주세붕, 정유길, 심수경, 황여헌, 노수성, 송희규, 오겸, 윤두수, 양산보, 이안눌, 山僧인 智泉 등 대단하였다. 이에 관해서 성수침은 “은 세상의 선비가 모두 송순의 문으로 모여들었다”고 감탄하였다. 송순과 교유하던 인물들은 정치계, 문학계, 사상계에서 이름 있는 인물들이었으니, 나이가 높은 이들은 대개 사상적인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었으며, 나이가 비슷한 인물들은 정치의 실력자로서 그 시대에 중요한 몫을 담당하던 이들이었고, 젊은 층은 문학계에 많은 공을 남긴 인물들이었다. 송순은 어려운 시대를 탈 없이 90년을 살아내어 후배들에게 인생을 가르쳐준 실천적 모범이었다. 그는 훌륭한 정치가였으며 친구 및 선배와 사귀에 능숙했고, 후배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그리고 이 많은 친구와 후배들은 하나의 계통을 이루어 호남가단의 실마리를 맺었으니¹⁷⁾ 이는 그의 인품과 학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처럼 송순에게 ‘담양’은 그의 경험과 의식, 그리고 생활의 중심으로서 삶의 원칙을 깨닫고 세우며 실천하게 했던 가르침과 성장의 장소였으며 인적 交遊와 교류의 체험을 통해 송순을 외부로 지향시키는 출발점이었다. 송순에게 개인의 정체성에 중요한 원천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호남사람이라는 공동체에 대해서도 정체감의 원천을 제공함으로써 그 선구자로 우뚝

15) 이종건, 『면양정 송순 연구』, 개문사, 1983, pp.37~38 참고.

16) 김성기, 앞의 책, p.275~276에서는 ‘면양정 가단’으로 정리하면서 100명에 달한다고 한다.

17) 이종건, 앞의 책, pp.17~30 참고.

서게 했던 것이다.

또한 송순 시가문학의 산실이요 노후생활의 중심지였던 ‘면양정’은 그가 꿈꾸었던 위로의 장소, 소망의 장소로서 부정적 정치현실로 인한 슬픔, 반감, 회한 등을 어루만지면서 자기를 들여다보고 평정심을 회복시켜 주는 의미를 지닌 장소이다. 32세 때 터를 매입하고, 41세에 세간짜리 초옥으로 지었으며, 60세에 담양부사 오겸의 권유와 재정적 도움으로 개축하는 과정은 ‘면양정’에 대한 30년에 걸친 송순의 삶과 체험, 지극한 애정이 새겨져 있다.

32세 때는 과거합격 시절(27세) 겪은 기묘사화로 인해 일찍이 현실정치에 대한 반감을 지닌 송순이 아버지 묘비를 세우다가 ‘담양’ 기촌 마을 상덕리 북쪽 2,3리 되는 곳에 터를 매입했던 것이고, ‘면양정’을 세우던 41세 때는 김안로의 횡포로 인해 고향인 ‘담양’에 돌아온 상황이었으며, 면양정을 개축하던 60세는 윤원형, 진복창 등의 전횡이 극에 달하던 시기로 그들 때문에 간 유배에서 막 돌아와 선산도호부사로 강등되었던 때이다. 부정적 정치 현실과 계속되는 불안감, 울적한 정회는 그를 영원한 안식처이자 귀의처인 고향 ‘담양’으로,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 이를 어루만져 주는 ‘면양정’이라는 장소로 이끌었던 것이다.

그는 ‘면양정’을 소재로 많은 작품¹⁸⁾을 쓰고 있어 그가 지향하는 삶의 장소이자 애정을 가진 곳임을 알 수 있다. ‘면양정’은 보다 근원적인 이상적 삶, 친밀하고 안정적인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장소로서, 생활의 중심지이자 교류의 장소로서, 의미로 가득 찬 구체적 장소가 되는 것이다. 문학사

18) ‘면양정’을 직접 소재로 한 작품은 漢詩가 총 15수(연대미상 <侷仰亭三言歌> 1수, 41세 때 지은 <侷仰亭> 7언 절구 1수, 46세 때 지은 <次侷仰亭韻> 7언 율시 2수, 47세 때 지은 <次侷仰亭韻> 7언 율시 2수, 57세 때 지은 <侷仰亭題詠> 7언 율시 1수, 60세에 지은 <次沖和弟侷仰亭絕句> 7언 절구 4수와 <復次侷仰亭韻> 7언 율시 3수, 80세에 지은 <素題韻> 7언 고시 1수)이고, 시조 9수(<면양정잡가> 2수와 <면양정단가> 7수)와 가사 1수(<면양정가>)가 전한다. 이종건, 앞의 책, p.122 참고.

에서는 이곳을 가사문학의 산실이요 시인들의 휴식처로, 누정문학의 시작점¹⁹⁾이라 평가한다.

87세 10월, ‘면양정’에서 송순 가족들이 준비한 회방연(回榜宴)(과거에 급제한 지 61년을 맞이한 잔치)은 송순 삶의 의미를 감동적인 경험으로 느끼게 하며, 그의 삶이 인간다운 삶이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금상께서 호조에 명하시어 술을 내리시고 축하하는 것이 꼭 급제에 합격할 때 내리신 국운과 같았다. 송강 정철, 제봉(霽峰) 고경명, 고봉 기대승, 백호 임제, 그리고 각 고을 수령 백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으니 전라도가 온통 축제 분위기였다. 밤이 깊어가자 선생께서 약간 취기가 있어 따뜻한 안방으로 돌아가고자 하시니 정송강께서 말씀하여 가로되 공을 남여(藍輿)로 모시자면서 우리 모두가 남여를 메지고 하였다. 일시에 모두가 남여를 붙들고 내려가니 사람들 모두가 감탄하여 광영스럽다며 이야기하기를 이는 옛날에도 없었던 일이라고 하였다.”²⁰⁾ 87세 송순의 삶은 가족과 후배, 친구들, 각 고을수령과 백성을 하나 되게 하는 아름다움을 담지하고 있으며, 따뜻함과 행복감으로 우리를 이끈다.

이제 송순 시가작품 속의 ‘담양과 ‘면양정’을 살펴봄으로써 이들 장소에 대한 그의 인식과 그 의미를 이해해 본다. 문학작품에서 장소는 작가가 선택한 의미 있는 구체적인 곳으로서 그가 지향하거나 애정을 가진 곳이기 때문이다.

1. 삶의 의지처-담양

‘담양은 송순에게 고향으로서 친밀한 장소이다. 이 점은 노계의 장소 찾기 방향과 노계에서의 정착²¹⁾과는 다른 양상으로 접근해야 함을 의미한다.

19) 김성기, 앞의 책, pp.270~273.

20) 김성기, 앞의 책, p.441.

송순은 늘 고향인 담양으로 돌아온다. 현실정치권에서 받은 상처와 갈등의 치유장소로서, 친밀하고 익숙한 체험의 장소로서, 담양은, 어머니처럼 변함 없이 그 곳에 존재하는 것이다. ‘담양’에는 순환적인 회귀의 안도감이 자리하고 있다. ‘담양’은 그에게 생활공간으로서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근원적인 삶의 의지처로서 자연과의 유대 속에 안식할 수 있는 장소이다. <면양정 잡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면양정 잡가>²²⁾는 정치현실을 벗어나 ‘담양’으로 돌아와 강호자연을 벗히는 기쁨을 노래한다. ‘담양의 자연 속에서 느끼는 정서와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면양정 잡가> 2수²³⁾

- (1) 秋月山 가는 바람 錦城山 넘어갈제
 들넘어 亭子위에 잠못이뤄 깨었으니
 일어나 앉아맞는 기쁜情이야 넋넌본듯 흐야라
- (2) 十年을 經營하여 草廬 三間 지어내니
 나흔간 들흔간에 淸風흔간 맛져두고

21) 노계가사와 장소성에 대해서는 최현재, 『노계가사에 나타난 장소성의 양상과 그 의미』, 『한국 고전시가의 장소성 탐색』, 2012 한국시가학회 전국학술대회, 2012. 11. 24. pp.45~64.

22) 송순의 시조 중 면양정 관련 <면양정 잡가> 2수와 <면양정 단가> 7수는 층위를 달리하여 정리한다. <면양정 잡가>는 ‘면양정’을 막 지어놓고 ‘담양’이라는 장소에서 송순의 체험과 그 의미들이 처음 자리 잡기 시작한 시기를 형상화한 것이라 보고 ‘담양’의 장소성에, <면양정 단가>는 ‘면양정’이라는 장소의 구체적 의미가 보다 분명해 지고 깊어지며, 교류의 확대와 승화된 정서 표현 및 자기 정체성 확립에 도달하는 보다 진전된 차원의 체험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면양정’의 장소성에서 다루려 함이다.

23) 『俛仰集』 卷之四, 雜著, <俛仰亭雜歌二篇>, a_026_237c, 한국고전종합DB, 한국고전번역원.

① 秋月山兮細風, 向錦城兮將去. 越野兮亭子上. 我無睡兮云窟. 起而坐兮歡喜情. 宛故人兮如觀. 右第一.

② 經營兮十年. 作草堂兮三間. 明月兮淸風. 咸收拾兮時完. 惟江山兮無處納. 散而置兮觀之. 右第二.

江山은 들일디 업스니 둘러두고 보리리²⁴⁾

(1)(2)는 ‘면양정’을 제재로 한 시이다. 김안로의 횡포에 ‘담양’으로 돌아와 어머니를 봉양하며 여생을 마칠 생각으로 면양정을 건립하던 41세 즈음의 작품으로 본다. 고향에 돌아와 10년 전 봐 두었던 땅에 10년 동안 꿈꾸었던 정자를 짓고, 그 곳에서 느끼는 감회와 그 의미를 읊은 작품들이다. (1)(2)는 연시조로 볼 때, 아직은 벼슬살이의 고통이 내재해 있는 세속과 완전히 절연하지 못한 (1)과 안정감을 되찾아 편안함으로 안착하는 (2)로 구성되어 있다²⁵⁾.

추월산과 금성산은 ‘담양’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로서 일단 ‘담양’이라는 장소의 구체성을 드러낸다. 고향인 ‘담양’에 돌아와 드디어 ‘면양정’을 짓고, 추월산으로부터 불어오는 細風이 금성산을 넘어갈 때, 송순은 정자 위에 앉아서 그 바람을 맞으며 잠 못 이루고 깨었으나, 그 바람결이 옛 임 본 듯 기쁘다고 표현함으로써 마음의 갈등을 표출하고 있다. 즉 바람으로 인해 ‘잠 못 이뤄 깰’ 상황과 그 바람을 ‘옛 임 본 듯한 기쁜 情’으로 맞게 되는 송순 마음의 갈등 상황을 진실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바람’은 송순을 잠 못 이루게 하는 고통스러웠던 벼슬살이의 기억, 권신들의 부당한 횡포에 대한 반감과 좌절감, 위기감, 불안감을 상징하는 동시에 佐君澤民할 때 모시던 임금에 대한 그리움과 그를 본 듯한 기쁨의 체험을 환기하기도 하

24) 김학성, 『면양정 송순 시조의 미학적 성취와 그 가치』, 앞의 책, p.60. 송순 시조의 노랫말은 이 책의 것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25) 특히 김학성은 앞의 책, pp.59~62에서 (1), (2)를 연시조로 분석한다. (1) 부당한 정치현실로 인한 고뇌가 있기에 (2) 청풍·명월·강산 같은 순수자연과 함께 티 없이 살아가려는 작자의 의지나 다짐이 더욱 깊은 의미와 정회(결연한 정서)로 다가온다고 본다. 따라서 연과 연 사이의 텍스트 적층으로 인한 긴밀한 授受관계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바, 이 작품을 단순히 하는 일 없는 선비의 ‘음풍농월’이나 ‘致仕客의 閑寂’, 혹은 “자연미 발견을 통해 道心을 회복하려는 신념을 노래한 것”이라는 표면적 해석, “현실과 너무 유리된 병들은 자연애”로 이해하는 입장들을 비판한다.

고, 또 벼슬살이의 고통스런 체험을 벗어나 친밀하고 안정적인 삶의 의지 처 ‘담양’에 돌아온 즐거움의 비유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등 다층적 의미를 담아낸다. 고향에 돌아왔지만 아직은 벼슬살이의 고통에서 완전히 빠져 나오지 못한 마음을 드러내지만, 동시에 고향 회귀의 안도감이 함께 표출되어 있다.

이 시의 자연은 체득한 자연이다. 구경하고 부르는 식이 아닌 몸소 바람의 절실함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내놓기 어려운 시²⁶⁾인 것이다. 그래서 김학성도 (1)이 “강호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며 음풍농월의 풍류를 즐기는 한적의 여유를 즐기고 있는 상황이 (아직은) 아니며, 따라서 잠을 설치고 깨어있는 낮 동안에는 솔솔 부는 “ㄱ는 바람[細風]”이나 맞으며 극도의 불안감을 맛보아야 했다. 그런 심회를 생생하게 그려낸 것으로 보인다.”²⁷⁾고 평하고 있다.

(1)의 암울하고도 불안한 정치적 위기감은 이어지는 (2)에서 ‘면앙정’을 건립, 그곳에서 청풍·명월·강산과 함께, 즉 순수하고 욕심 없는 자연과 더불어 ‘면앙우주지의’를 실천하며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어느 정도 정서적 안정감을 찾으려 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는 바로 그러한 정황을 노래한 것이다.²⁸⁾ 이제 비로소 10년 노력 끝에 만든 ‘면앙정’이라는 정자의 소박함과 아름다움을 청풍·달·강산과 나의 조화를 통해 드러냄으로써 최고의 표현과 정서, 공감을 얻어낸다.²⁹⁾ 보다 구체화된 ‘면앙정’은 안정감을 되찾아 편안함으로 안착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담양’은 그렇게 송순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회복시켜 주는 장소이며, 사대부로서의 명

26) 이종건, 앞의 책, p.113.

27) 김학성, 『면앙정 송순 시조의 미학적 성취와 그 가치』, 앞의 책, p.61.

28) 김학성, 『면앙정 송순 시조의 미학적 성취와 그 가치』, 앞의 책, p.61.

29) 조동일, 앞의 책, p.331에서 “은거를 자랑하는 시가 이 이상 멋진 표현을 갖추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극찬.

분을 다짐하는 장소로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성기옥³⁰⁾ 또한 (2)에 대하여 송순의 전기적 사실과 관련시켜 보아야 함을 강조한다. 초장이 안빈낙도를 빙자한 상투적 허세의 몸짓이 아니라 모두가 사실에 입각한 진술인 바, 면양정 부지 구입과 건립까지 10년, 이 때 임시로 엮은 3간짜리 초당 모두 사실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2)는 시에 진술된 대로 향촌에서 검소하게 자연을 벗 삼아 살고자 하는 심경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 작품으로 허세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노래가 송순 개인사에 근거한 사실의 노래임을 환기하면서, 삶이나 자연에 대한 성찰 혹은 노래된 세계의 깊이는 텍스트가 아니라 그 뒤-텍스트 상황-에 잠복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끊이지 않는 숙청으로 불안한 정국, 계속되는 신변의 위협, 그것들이 압박한 상황 속에서 초옥을 짓고 자연을 벗 삼아 살리라는 노래를 했다면 이것은 음풍농월의 한적이라기보다, 혼란한 정치현실에 대한 반동의 언어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³¹⁾은 설득력 있다. 특히 다짐과 의지의 어조가 이를 뒷받침한다. 하지만 노래 표면의 안정감은 달성 가능한 소박함과 편안함에서 비롯된 것이며 ‘담양’이라는 익숙한 장소에 돌아왔다는 안정감과 직결된 것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

이처럼 (1)과 (2)에서 ‘담양’은 아주 구체적인 삶의 장소로 형상화되어 있으며, 송순 개인의 경험과 의식, 친밀하고 안정적인 삶의 방향과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송순은 오랜 시간 체험을 통해 ‘담양’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것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자신의 장소, 삶의 의지처이자 귀환의 장소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이다.

三十年前占此區 삼십년 전 이곳을 점쳐 놓고서

30) 성기옥, 『宋純의 시조 한 수가 들려주는 시의 꿈 하나』, 『시안』 제2권, 1998. 12, pp.61~77.

31) 성기옥, 앞의 책, pp.61~77.

歸心幾逐暮雲浮 돌아갈 마음 몇 번이나 뒀던가, 저녁구름에
 今來始起新亭臥 이제야 새 정자 짓고 와 누우니
 白髮蕭蕭映碧流 흰머리 쓸쓸히 푸른 물에 비쳐라³²⁾

60세에 지은 <次沖和弟俛仰亭絕句> 4수 중 첫 번째 작품이다. “三宰宋純은 이조참판으로 재직할 때에 贊成 許磁와 합심하여 어진 이를 천거하다가 권신의 미움을 받아 외방으로 5년이나 유배되었다. 이후로는 항상 벼슬을 버리고 귀향하려던 생각을 품었다”는 허균(『성소부부고』, 說部)의 기록처럼 간절한 귀거래의 소망이, 30년 전 정자건립 부지를 매입해 놓고 돌아갈 기회만을 보고 있었던 마음이, 그리고 그 실현의 안도감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다.³³⁾

이 작품 또한 ‘면양정’ 개축이라는 전기적 사실과 관련·이해되어야 한다. 60세 송순의 상황은, 위 내용처럼 권신들의 음모로 충청도 서천, 평안도 순천 등으로 귀양 가게 되며, 외임으로 나가라는 왕명에 의해 강등되어 선산도호부사로 제수된다. 이 때 담양부사 오겸의 권유로 ‘면양정’을 손질한 것이다. 따라서 삼십년 전(32세) 면양정 터를 매입하고, 늘 돌아오려 먹었던 마음[歸心]이 애절하게 다가온다. 41세 때, 김안로의 횡포로 인한 부당한 정치현실에 좌절하여 ‘담양’으로 돌아와 ‘면양정’을 짓고 어머니를 봉양하며 여생을 마치리라 생각했던 그 마음이, 50대 송순에게 밀어닥친 어머니의 죽음과 을사사화 그리고 유배라는 정치적 격랑으로 인해 더욱 절실했을 歸心이, 저녁 구름에 얽혀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담양’에 안착한 송순은 그저 행복한 것만 같지는 않다. 푸른 물(자연)에 비친 늙어버

32) 『俛仰集』, 卷之三, 詩, <次沖和弟俛仰亭絕句 四首> 중 (1) a_026_220d, 한국고전종합DB, 한국고전번역원.

번역은 김학성, 최상은, 이종건, 최한선 등 여러 학자 참고하여 정리.

33) 최한선, 앞의 책, p.118.

린 모습의 쓸쓸함에는 삶의 의지처에 돌아왔지만 아직은 벼슬살이 고통에서 완전히 빠져 나오지 못한 마음과 ‘이제 돌아와 새 정자 짓고 누운’ 고향 회귀의 안도감이 동시에 표출되어 있다. 연보에 의하면 이 때 면양정 개축 후 임제, 기대승, 김인후, 고경명, 박순 등이 글을 지어 축하했다고 한다. 돌아온 감회와 아울러 친구와 후배들의 기쁨 자못 컸으리라 짐작된다.

송순에게 ‘담양은 정지(멈춤)이며, 그가 부여하는 가치들의 안식처이며, 안전과 애정을 느낄 수 있는 고요한 중심이었다. 그리고 그가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했던 친밀한 곳으로서 의미로 가득 찬 구체적 장소(concrete place)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담양이 그 친밀함으로 그에게 안전하고 편안하며 이상적인 장소감(sense of place)을 가지게 함을 짐작할 수 있다.³⁴⁾ 송순은 직접적이고 친밀한 경험, 자연이라는 상징에 의해 매개되는 간접적이고 개념적인 경험을 통해 ‘담양이라는 장소에 의미를 부여한다.

오랜 기간 사람들에 회자되었던 은근한 절개와 성품에 대한 예찬은 돌아갈 수 있는 고향, ‘담양이 있음으로 가능하였다. 그가 담양→서울→외직으로, 다시 서울→담양→외직으로 옮겨 다닌 듯하나, 고통에 처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을 때, 귀의처로서 ‘담양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부조리와 불안, 반감과 분노로 힘겨울 때, 돌아와 자긍심과 평정심을 회복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획득하며 나아가 그의 이상적 지향인 眞樂에 도달하는 장소였던 것이다.

2. 자기응시와 평정심의 회복 - 면양정

‘俛仰亭’은 30년 송순의 삶과 체험, 그리고 지극한 애정이 새겨져 있는 곳이며 따라서 송순이 ‘담양’에서 찾아 낸 자기 정체성의 장소이다. 송순

34) 이-푸 투한, 앞의 책, pp.7~8, pp.15~20.

시기문학의 산실이요 중년이후 생활의 중심지였던 ‘면양정’은 송순 개인이 꿈꾸었던 소망의 장소인 것이다. 부정적 정치현실로 인한 슬픔, 반감, 회한 그리고 계속되는 불안감, 울적한 정회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 위로를 주는 ‘면양정’이라는 장소로 이끌었던 것이다. ‘면양정’은 참된 삶의 의미가 보다 분명해지고 깊어지며, 교류의 확대와 승화된 정서표현 및 자기정체성 확립에 도달하는 보다 진전된 차원의 체험을 하게 되는 장소이다.

‘면양정’은 송순 시가에서 자기를 응시하면서 부끄럼 없는 떳떳한 삶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고 평정심 회복에 도달하는 장소로 형상화되어 있다. 송순의 마음과 의미는 다음 시에 잘 드러나 있다.

<俛仰亭歌 三言>³⁵⁾

俛有地	굽어는 땅이요
仰有天	우러리는 하늘이라
亭其中	이중에 정자지어
興浩然	호연한 흥취 일어나니
招風月	풍월은 불러들이고
挹山川	산천은 가까이 두어
扶藜杖	여장에 의지하여
送百年	평생을 살리라

면양정을 세운 송순의 뜻이 잘 드러나 있다. 정자의 위치와 자연을 가까이 두고 지내는 흥취를 노래했지만, 단순히 그런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 ‘면양’에는 ‘우러러 하늘에 부끄러움이 없고 굽어보아 인간에게 부끄러움이 없다(仰不愧於天 俯不忤於人)’(『맹자』 「盡心」 편)는 송순의 지향이 담겨 있다. 즉 풍월과 산천을 거느리고 사는 호연한 흥취를 노래했지만, 거기에

35) 『俛仰集』 卷之三, 詩, <俛仰亭歌 三言> a_026_232c, 한국고전종합DB, 한국고전번역원.

는 평생 부끄럼 없는 떳떳한 삶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자연을 노래한 송순의 작품이 도가적 현실 도피의 신진경으로 빠져들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규범적 존재로서의 하늘과 현실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살고 있는 땅 사이에 굳건히 서 있는 정자가 ‘면양정’이다. 초월의 세계를 꿈꾸며 현실세계를 떠나려 하는 듯하지만 면양정은 늘 거기에 있는 것이다. 송순이 꿈꾼 흥취가 바로 여기에 있다. 벗어나려는 듯 들떠 있지만 항상 그 자리에 터를 잡고 산천을 불러들이고 끌어들여 함께 흥겨워하는 인간적 정취가 있다.³⁶⁾

누정은 빼어난 경승지의 높은 언덕에 위치하여 광활한 조망을 유지한다. 즉 하늘과 땅의 중간에 자리하여, 단순히 흥취를 즐기고 경치를 완상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천지자연의 조화를 궁구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면양우주를 위한 지세를 가진 ‘면양정’ 또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매개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이다. 옛 선비들은 세속을 벗어나 강호의 명승지를 찾게 되면 으레 여기에 먼저 누정을 세웠다. 누정문학의 관점에서 보면 ‘면양정’은 이른바 면양정 시단을 이룬 많은 문인들의 활동 무대로서 의미가 있다.³⁷⁾

이 시는 ‘면양정’을 세우면서 표방한 송순의 우주관과 자연관 그리고 삶에 대한 생각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 천인합일의 경지와 자연과의 물아일체, 그리고 호연지기의 흥취를 추구하는 士林으로서의 자세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면양정’이라는 장소 및 송순의 삶과 관련하여 선언적이고 종합적이며 궁극적인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송순이 지향하는 자연속의 삶은 무위자연의 도가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이 부여한 본성대로 인간의 땅에서 윤리를 실천하면서 굳건하게 살아가는 유가적인 삶인 것이며, 따라

36) 최상은, 『송순의 꿈과 <면양정가>의 흥취』, 『제13회 전국국사문학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2012. 11, p.18.

37) 김신중, 『은둔의 노래 실존의 미학』, 다지리, 2001, p.26.

서 ‘면양정’은 현실초탈의 의미를 지닌 장소가 아니라 송순이 꿈꾸었던 조화롭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체험적 현실이 되는 것이다.

<면양정 단가> 7수³⁸⁾

- (1) 굽어는 땅이오 우러러는 하늘이라
두분의 곳을조차 내삼겨 살아시니
溪山에 풍월을 거느려 높을너를 몰래라
- (2) 넘거나 넘은들에 내도 길고긴디
눈긋흔 흰모래이 구름긋치 펼쳐시니
일업슨 낙대멘 사름은 히딘줄을 몰라라
- (3) 松籬에 들이올라 竹梢에 잠간쓰니
거문고 빗기안고 바회⁷에 안자실제
어디서 외기러기는 홀로올어 예느다
- (4) 山으로 屏風삼아 들밧게 둘러두니
디나는 구름조차 자려고 들온논대

38) 『侷仰集』 卷之四, 雜著, <侷仰亭短歌七篇>, a_026_237b, 한국고전종합DB, 한국고전번역원.

- ① 侷則地兮. 仰則天兮. 兩位之際兮. 從而生我兮. 居焉領溪山兮. 風月將與偕兮老云. 右第一.
- ② 廣廣之野兮. 川亦修而脩兮. 如雪兮白沙. 如雲之鋪兮. 無事携竿之人兮. 曾日落兮不知. 右第二.
- ③ 松籬兮昇月. 至竹梢兮轉離. 玄琴兮橫按. 巖邊兮猶坐. 何許失伴兮. 鴻雁而獨鳴兮云徂. 右第三.
- ④ 山作兮屏風. 野外兮周置. 過去兮有雲. 咸欲宿兮入來. 何無心兮落日. 而獨逾而去兮. 右第四.
- ⑤ 宿鳥兮飛入. 新月兮漸昇. 時獨木兮橋上. 獨去兮彼僧. 爾寺兮何許. 遠鍾聲兮入聆. 右第五.
- ⑥ 見山頂兮夕陽. 而跳遊兮群魚. 惟無心兮此釣竿. 無以兮剩疑. 清江月將生兮. 此間興兮不可支. 右第六.
- ⑦ 天地兮帳幕. 日月兮燈燭. 傾彼北海兮. 海樽兮是漑. 作南極老人星兮. 將不知兮有晦. 右第七.

- 어찌타 無心흔 落日은 홀로넘어 가는노
 (5) 잘새는 느라들고 식달은 도다온다
 외나모 다리로 호올로가는 더仙師야
 네덜이 옛마나 淸觀디 遠鐘聲이 들리나니
 (6) 山頂에 노을지고 못고기 썬노느니
 無心한 이낙시야 고기야 잇건업건
 淸江에 돌돌아오니 이스이興이야 일러무삼
 (7) 天地로 帳幕삼고 日月로 燈燭삼아
 北海水 휘여다가 酒樽에 다혀두고
 南極에 老人星對하여 늙은늬를 모르리라

<면양정 단가>는 모두 ‘면양정’이라는 장소에서 시적 자아, 즉 송순이 추구하는 보다 근원적인 이상적 삶, 친밀하고 안정적인 삶을 구체화한다. 따라서 ‘면양정’은 문학적 ‘배경’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작품의 핵심적 요소, 작품의 주제를 드러내기 위한 상징적 장소로 중요하다. <면양정 단가>는 (1)이 작품전체의 시작으로서 송순시가에 거듭 표현³⁹⁾되는 天地人 일체를 통한 부끄러움 없는 삶에 대한 긍지와 호연홍취에의 몰입, 영원성의 희구 등 ‘俛仰宇宙之義’를 노래하면서 시작하는 바, 작품 전체의 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2)~(6)까지 그 구체적 상황묘사와 마음의 변화를 반복적으로 제시한 후, 총결로서 하늘, 땅, 해, 달, 별 등 총체적 자연, 온 우주를 끌어안고 그 안에서 북해수를 술항아리에 담아두고 남극의 노인성을 대하여 마시는 호쾌하고 광대한 홍취와 늙는 줄을 모르겠다는 삶의 영원성 희구를 표현한 (7)로 마무리한다.

<면양정 단가>는 (1)과 (7)을 제외하고 (2)~(6) 모두 시간적으로 해질

39) <俛仰亭三言歌>, <면양정 단가> (1)은 거의 옮긴 듯 같고, <俛仰亭歌>에서도 마지막에 “江山風月 거닐리고 내百年을 다누리면 岳陽樓上的 李太白이 사라오다 호탕정화야 이에서 더홀쇼냐”라는 유사구가 있다.

무렵, 해가 지고 달이 뜨는 밝음과 어둠의 교차시점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는 자기응시의 시간으로서 가장 이상적인 배경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1)~(7) 모두 해 또는 달, 혹은 해와 달이 자연배경으로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동일성은 이들 작품을 독립적인 작품으로 볼 것이 아니라 연시조⁴⁰⁾로 보고 그 구조적 접근과 작품이해를 시도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특히 (1)과 (7)이 “늙는 줄을 모르겠다”는 몰입과 자궁, 호연한 흥취로 마무리하는 양상은 수미쌍관의 짜임새를 보이는 바, 더욱 그러하다. 또한 (2)→(6)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쓸쓸함과 울적한 정회, 그리고 외로움이 자연의 무심함과 선사의 평화로움에 대한 각성으로 이어지고, 자기응시를 통해 평정심을 회복해 가는 과정이 단계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흥미롭다. 각성과 자기응시 끝에 도달하는 광활하고 호쾌하며 우주를 품어 안은 듯한 호연한 흥취(7)는 송순이 ‘면양정’에서 체득한 조화로운 세계인 것이다.

김학성⁴¹⁾에 의하면 본시는 ‘일몰의 쓸쓸함→달밤에 울고 가는 외기러기→무심한 落日→홀로 가는 선사→청강에 던지는 달의 흥취’로 텍스트 적층을 이루면서 현실 정치에서 부당하게 축출된 쓸쓸함과 울적함의 정회에서부터 자연의 무심함과 선사의 탈속의 길을 法 받으며 마침내 그러한 세속적 욕구를 떨쳐내고 강호진락의 흥취를 누리게 되는 과정 곧 심성수양의 생생한 단계를 노래한 것이라고 정리한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 도달한 강호진락의 흥취는 마침내 우주와 통하는 호방함으로 절정을 이루어 (7)에서 “천지로 장막삼고 일월로 등축을 삼는”, 거기다가 “북해수를 휘여다가 酒樽

40) 김학성, 「면양정 송순 시조의 미학적 성취와 그 가치」, 앞의 책, pp.65에서는 이 작품의 서사와 결사가 수미쌍관의 긴밀한 짜임으로 이루어지고, 그 중간에 서두에서 마무리로의 변화과정을 본사로 보여 주는 것이 (2)에서 (6)까지의 구조적 질서라고 보고 매우 치밀하고 논리적으로 정리·분석하고 있는 바, 작품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41) 김학성, 「면양정 송순 시조의 미학적 성취와 그 가치」, 앞의 책, pp.67~68.

(술동이)에 다허두”는 호쾌한 흥취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작품 이해에 더할 나위 없는 설명이다.

그러니까 이들 작품 또한 단순히 강호한정이라는 상투적·단정적 접근 보다는 송순 삶에 직결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작가의 체험에 기반 한 분석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강호자연을 취미수준이 아니라 생활수준에서, 즉 몸과 마음이 일치된 상태에서 즐기는 것, 즉 眞樂의 흥취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다.

<俛仰亭>⁴²⁾ *司諫罷歸後作(시간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 짓다)
 百里群山擁野平 백리 안의 여러 산이 평야를 에워싼 곳
 臨溪茅屋幸初成 시냇가 가까이에 초옥을 이루었네
 此身不繫蒼生望 이 몸이 백성들 바라는 것을 이룰 수 없으니
 宜與波鷗結好盟 갈매기와 더불어 좋은 짝 이루었네

司諫으로 있다가 돌아와 매입해 두었던 터에 면양정을 건립한 41세 때 지은 시임을 알 수 있다. 김안로의 횡포가 극에 달한 시기에 어진 선비들을 배척하자 돌아와 자연속의 삶을 읊은 것이다. 1.2구에서는 산과 평야, 물과 초옥이 어우러진 ‘면양정’의 승경을, 3.4구에서는 벼슬길에서 물러나 갈매기와 짝을 이루는 자신의 처지를 나타냈다. 이 또한 보다 근원적인 삶, 친밀하고 안정적인 삶을 구체화한다. 부정적 정치현실로 인한 울적함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 위안 받고, 평정심 회복을 돕는 ‘면양정’으로 이끌었던 것이다.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처신으로 인한 자긍심보다는 참 정치를 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좌절이 드러나지만, 이는 자연과 하나 됨을 통한 치유에 도달한다. ‘면양정’은 공허하고 쓸쓸한 현실, 부정적 정치 현실로 인한

42) 『俛仰集』 卷之一, 詩, <俛仰亭> (司諫罷歸後作), a_026_198c, 한국고전종합DB, 한국고전번역원.

슬픔, 반감, 회한 등을 어루만지면서 자기를 들여다보고 평정심을 회복시켜 주는 의미를 지닌 장소이다.

<次冲和弟俛仰亭絶句 四首>⁴³⁾ 중 (3)

破得天慳啓玉區 하늘도 아끼던 이곳을 열어
 一登豪氣便高浮 한번 오르니 豪氣가 문득 드날려
 風回雨歇呈新霽 비 그치고 바람 불어 새로 개이니
 撲面山光翠欲流 다가선 산 빛 물 흐르듯 질푸르다

‘면양정’을 개축한 60세에 지었다고 알려진 작품 4수 중 하나이다. 이제 좌절감이나 쓸쓸함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하늘도 아끼던 곳이라는 자긍심과 드날리는 豪氣가 자못 도취의 自樂으로 넘친다. 비 그쳐서 갠 날씨에 산 빛은 얼굴 가까이 다가와 질푸른 빛으로 물들인다. 자연과 하나 되는 물이일체의 흥취가 돋보인다. 이 시에서 ‘면양정’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통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에 도달한 송순의 마음이 아름답게 담겨 있다.

‘면양정’은 30년에 걸친 송순의 지극한 애정이 결실을 맺은 곳, 그의 삶과 체험이 새겨져 있는 곳, 송순이 꿈꾸었던 소망의 장소, 부정적 정치현실로 인한 슬픔, 좌절 등을 위로하면서 자기를 응시하고 평정심을 회복시켜 주는 의미를 지닌 장소이다. 그 결과 ‘면양정’은 보다 근원적인 이상적 삶, 친밀하고 안정적 삶을 가능하게 해 준 장소로서, 이후 송순 시가문학의 산실이요 생활의 중심지이자 교류의 장소로서 의미로 가득 찬 구체적 장소가 된 것이다.

43) 『俛仰集』, 卷之三, 詩, <次冲和弟俛仰亭絶句 四首> 중 (3), a_026_220d, 한국고전종합DB, 한국고전번역원.

Ⅲ. 여유와 달관, 자궁과 眞樂-〈면양정가〉의 자연

송순은 벼슬살이와 귀거래, 그러니까 ‘한양’과 ‘담양’ ‘면양정’을 반복적으로 오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담양’과 ‘면양정’이라는 장소 체험을 통해 궁극적 깨달음에 도달하였음을 보여준다. 그가 꿈꾸었던 가장 조화롭고 평화로우며 아름다운 이상적 경지, 자연과의 합일, 그리고 그 속에 사는 흥취의 최고점인 ‘眞樂’에 이른 것이다.

〈면양정가〉는 송순이 담양과 서울을 오가며 겪었던 삶의 체험들이 행복감이었던 기쁨이었던 좌절감과 불안감이었던 그 모든 것을 승화시킨 끝에 도달한 가장 아름다운 경지를 보여준다. 이제 불안도 회의도 좌절도 없는 절대조화의 자연세계가 펼쳐지며, 송순의 장소감으로서의 ‘자연’이 정점에 도달한 양상이다. 〈면양정가〉의 ‘자연’은 승화된 이상향, 자기응시와 평정심 회복 끝에 도달한 自樂의 경지, 여유와 달관, 자궁과 眞樂의 경지에 다름 아니다.

송순은 체험을 통해 자연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것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면양정가〉의 자연에 이른 것이다. 〈면양정가〉에서 자연은 송순이 선택한 의미 있는 구체적인 곳으로서 그가 지향하고 애정을 가진 곳임을 확인할 수 있다. 〈면양정가〉의 자연에는 송순의 경험과 의식, 그리고 생활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송순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벼슬하고 귀거래하며 살았던, 그 중 특히 감동적인 경험을 가졌던 ‘담양’과 ‘면양정’이란 장소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으며, 송순 개인의 정체성과 문화적 정체성, 그리고 안정감의 근원이자, 송순이 세계 속에서 자신을 외부로 지향시키는 출발점을 구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면양정가〉에는 송순시가에 공통되는 부끄럼 없는 떳떳한 삶에 대한 표방과 하늘과 땅을 아우르는 浩然之氣의 흥취가 담겨있으며, 현실을 초월한 존재가 아니라 담양의 제월봉에 구체적으로 현존하는 ‘면양정’ 정자

와 소유자인 송순이 표방하는 규범적 은유성을 갖는 객관적 상관물로서 ‘면양정’이 至高至善한 사람의 이상적 이미지로 구현되어 있다. 또한 <면양정가>는 상호 대립되거나 모순되는 요소를 상호 의존케 하여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침이 없는 평형과 조화를 유지, 중용 혹은 중화의 원리, 평형과 조화의 미, 均과 和의 미학이 드러난다. 이는 송순철학의 기본으로서 敬과 直의 조화로운 효용에 힘썼던 삶에서 형성된 원리인 것이다.

또한 자연과의 합일에 의한 풍류, 나아가 자아와 이웃하고 있는 타자와의 합일에 이르러 비로소 완성되는 기쁨, 자아와 자연 나아가 자아와 인간이 합일된 순간에 도달 할 수 있는 유가의 이상적 경지에 도달했음에도 “亦君恩이샀다”로 임금을 떠올리는 유가적 이상으로서의 신선으로 형상화된다. 강호자연의 사림이 모든 시름을 잊고 풍류를 즐기며 물아일체의 경지에 도달하여 신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음도 임금의 은혜로 생각하는 王道정치의 至治를 생각하는 사림과의 義理之學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⁴⁴⁾

<면양정가>는 전반부에서 ‘景物의 조화로운’을 (1)‘면양정’의 위치와 모양, (2)근경 (3)원경 (4)사계의 단계적 전개를 통해 사물현상 하나하나에 초점을 맞추어 구체적으로 형상화한다. 후반부는 주로 ‘자아의 흥취’를 (5) 자연과의 합일 나아가 (6)자연화한 인간과의 합일 끝에 도달한 君恩에의 감사를 통한 유가적 이상을 표현하면서 마무리한다. 즉 ‘景物의 조화로운을 발견한 자아의 흥취’, ‘物我一體’의 경지를 형상화한다. ‘(5)자연과의 합일’ 부분이다.

人間을 떠나 와도	내 몸이 겨를 업다
니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드르려코

44) 김학성, 『송순 시가의 시학적 특성』, 『한국고시가의 거시적 탐구』, 집문당, 1997, pp.433~450 참조.

벼람도 허려 호고	돌도 마즈려코
넙으란 언제 줍고	고기란 언제 낙고
柴扉란 뉘 다드며	딘 콧츠란 뉘 쓸려료
아춤이 낫브거니	나조히라 나올소나
오늘리 不足거니	내일리라 有餘호라
이 피히 안즈 보고	저 피히 거러 보니
煩勞흔 ㅁ음의	브릴 일리 아조 업다
쉴 스이 업거든	길히나 전호리아
다만 흔 靑藜杖이	다 피디여 가노미라

송순은 이제 불안감도 좌절감도 가질 필요가 없었다. 자연과 함께하는 즐거운 ‘겨를 없음’이 흥겹게 표현된다. 조동일은 <면앙정가>와 이 부분에 대해 “거추장스러운 고사를 빌려오지 않고서도 자기생활이나 지닌 뜻을 설득력 있게 나타낼 수 있었다. 자랑스러운 고장에서 우뚝 서서, 구김살 없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자연에서 저절로 얻는 흥취를 자랑…풍류를 즐기 노라니 괴로움도 쓸쓸함도 없다. 그런 경지에 이르렀으니 더 바랄 것이 없다. 이 작품에 이르러서 자연의 흥취를 즐기는 정서가 본격적인 표현을 얻어, 그 뒤에 두고두고 모범이 되며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신선이 된 듯이 행세하고 마는 것은 유가의 도리가 아니라는 점을 잊지 않아, ‘이몸이 이렇굽도 亦君恩이샷다’는 말로 마무리 삼았다. 자연의 흥취를 정치 바깥에서 찾는다고 해서 윤리를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⁴⁵⁾며 극찬한다. ‘(6) 자연화한 인간과의 합일’ 부분이다.

술리 닉어거니	벗지라 업슬소나
블니며 ㅅ이며	허이며 이아며
온가짓 소리로	醉興을 비야거니

45) 조동일, 앞의 책, pp.300~301, pp.330~332.

근심이라 이시며	시름이라 브터시라
누으락 안즈락	구부락 저즈락
을프락 프람ㅎ락	노혜로 노거니
天地도 넓고 넓고	日月도 혼가ㅎ다
羲皇을 모을너니	니 적이야 괴로괴야
神仙이 엇더턴지	이 몸이야 괴로고야
江山風月 거늘리고	내 百年을 다 누리면
岳陽樓 상의	李太白이 사라 오다
浩蕩 情懷야	이에서 더홀소나
이 몸이 이렇굽도	亦君恩이샷다

술과 벗과 음악과 자연이 어우러진 그지없는 기쁨이 형상화되어 있다. 자연과의 합일, 나아가 이웃하고 있는 타자와의 합일에 이르러 비로소 완성되는 풍류, 자아와 자연, 자아와 인간이 합일된 순간에 도달할 수 있는 유가의 이상적 존재자로서의 송순이다.

<면양정가>는 송순 자연미학의 극치로 평가되며, 가장 조화롭고 이상적이며 호남사람다운 작품으로 자리매김 된다. 어지러웠던 정치현실과 삶 의 고통을 완전히 벗어난 여유와 달관, 자궁과 自樂의 경지를 만날 수 있다. 송순은 <면양정가>에서 주변의 자연을 온 품에 안은 듯, 꼼꼼하게 조목조목 서술(표현)한 섬세한 풍경 묘사로부터 먼 자연의 광대함까지 모든 것을 담아내는 최고경지에 도달한다. 이후 송순이 강호문학의 선창자, 강호가도의 시작 등의 평가를 받는 이유는 ‘자연’, 보다 구체적으로 ‘담양’ 혹은 ‘면양정’이라는 장소에 대한 문학적 형상화의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에게 자연은 일상적 삶인 동시에 꿈이고 이상향이었다. 그에게 자연은 매일매일 발 딛고 서 있는 현실이었지만 동시에 고달프거나 힘든 상황이면 돌아가고 싶은 의지처, 어머니 같은 존재였다.

IV. 맺음말

이 글에서는 송순 삶의 주요 국면 및 체험들을 중심으로 개인적 경험에 대한 그의 문학적 반응으로서의 詩歌, 담양과 ‘면양정’이라는 특정장소에 대한 송순의 인식과 그 의미, 나아가 그 총체로서 ‘자연’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특히 송순작품이 삶의 직접적 표현임에 주목한다. 따라서 작품을 볼 때, 전기적 사실과 관련시켜 보아야 하는 바, 시의 내용이 상투적 허세의 몸짓이 아니라 사실에 입각한 진술, 심경을 드러낸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송순 삶에서 중요한 장소는 ‘담양’과 ‘면양정’이었으며, ‘자연’이었다. ‘담양’과 ‘면양정’은 한양체험 즉 부조리와 불안, 반감과 분노로 힘겨울 때, 돌아와, 자긍심과 평정심을 회복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획득하며 나아가 이상적 지향인 眞樂에 도달하는 의지처였다. 평생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부당한 정치현실에 휩쓸리지 않았던 것은 ‘담양’과 ‘면양정’ ‘자연’이 있어 가능하였다. 송순에게 자연은 탈속의 지향점이나 이상향이라기보다 구체적 삶의 공간이었다.

송순은 자신의 장소인 ‘담양’과 ‘면양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잘 알고 있었다. 이들은 송순이 외부와 맺는 유대를 드러내는 동시에 그의 자유와 실재성의 깊이를 확인하는 의미 있는 장소로서 존재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송순은 인간다운 삶을 살았던 시인이었다.

‘담양’과 ‘면양정’은 사대부로서의 이념지향과 의식지향을 실현시키는 장소로서 그 곳에서 산출된 한시·시조·가사는 그의 문학세계의 정점을 이룬다. 송순문학의 사람들에게 정치적 암투나 정쟁의 희생과 관련 없는 순수한 자연애와 동료애로 교류할 수 있는 장소성을 지닌 곳으로서 호남가단을 이루는 시발점이 되었다. 특히 ‘면양정’은 30년에 걸친 송순의 지극한 애정이 결실을 맺은 곳, 그가 꿈꾼 소망의 장소, 부정적 정치현실로 인한

상처를 위로하고 자기응시를 통한 평정심 회복의 의미를 지닌 장소이다. 그 결과 ‘면양정’은 이후 송순 시가 문학의 산실이요 생활의 중심지이자 교류의 장소로서 의미로 가득 찬 구체적 장소가 된 것이다.

송순 자연미학의 극치인 <면양정가>에 이르면 불안도 회의도 좌절도 없는 절대조화의 자연세계가 펼쳐지며, 송순 장소감으로서의 ‘자연’이 정점에 도달한다. <면양정가>의 ‘자연’은 자기응시 끝에 도달한 自樂의 경지, 여유와 달관, 자궁과 眞樂의 경지인 것이다. 오랜 기간 사람들에 회자되는 그의 은근한 절개와 성품에 대한 예찬은 ‘담양과 ‘면양정’이 있음으로 가능하였다. 고통에 처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을 때, 돌아올 마음의 의지처로서 ‘담양’과 ‘면양정’ 그 모든 것의 정점인 ‘자연’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참고문헌】

- 김동준, 「송순」, 『한국문학작가론』 2, 집문당, 2000, p.155~166.
- 김성기, 『면앙송순시문학연구』, 국학자료원, 1998, pp.415~446.
- 김수경, 「장소로 본 옥국재 가사 작품」, 『한국 고전시가의 장소성 탐색』, 2012 한국시가학회 전국학술대회, 2012. 11. 24. pp.67~90.
- 김신중, 『은둔의 노래 실존의 미학』, 다지리, 2001, pp.14~27.
- 김창원, 「〈關東別曲〉의 관찰사 여정과 심상지리」, 『한국시가연구』 27집, 한국시가학회, 2009. 11. pp.127~148.
- 김학성, 「면양정 송순 시조의 미학적 성취와 그 가치」, 『한국 고전시가의 전통과 계승』, 성대 출판부, 2009, pp.45~71.
- _____, 「송순 시가의 시학적 특성」, 『한국고시가의 거시적 탐구』, 집문당, 1997, pp.433~450.
- 성기욱, 「宋純의 시조 한 수가 들려주는 시의 꿈 하나」, 『시안』 제2권, 1998. 12., pp.61~77.
- 이종건, 『면양정 송순 연구』, 개문사, 1983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2, 지식산업사, 1986, pp.300~301, pp.330~332.
- 최상은, 「송순의 꿈과 <면양정가>의 흥취」, 『제13회 전국가사문학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2012. 11, pp.9~27.
- _____, 「송강 가사의 이념과 현실, 그리고 공간과 장소 의식」, 『한국 고전시가의 장소성 탐색』, 2012 한국시가학회 전국학술대회, 2012. 11. 24. pp.1~23.
- 최한선, 「면양정 송순의 한시」, 『고시가 연구』, 한국고시가문학회, 1997, pp.107~135.
- 에드워드 렐프, 심승희 외 역,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 이-푸 투한, 구동희·심승희 옮김, 『공간과 장소』, 대운, 1994, pp.7~8.

Abstract

A Study on the placeness of Song Soon's Poetry —Focused on his nature poetry

Kim, Eun-hee

In this thesis, I focused to the important turning points and experiences of Song Soon's life to examin his poetry as a literary response to his individual experiences, the recognition and meaning to the specific places 'Damyang' and 'Myeonangjeong' and 'Nature' as a totality in advance. 'Damyang' and 'Myeonangjeong' were Propping Places to him for recovering his pride and composure as a nobility and gaining an emotional sense of stability after he had been struggled by the irrationality, uneasiness, anger and hostility from the life of Hanyang. So he could reach to his ideal point 'pure pleasure' in the place. It was possible to live without compromising to injustice and being swayed to unfair political reality during his lifetime because of the existence of 'Damyang' and 'Myeonangjeong' as a origin of the sense of stability. The 'Nature' was neither a ideal purpose of unworldliness and a utopia but the definite place of life to Song Soon. 'Damyang' and 'Myeonangjeong' were the familiar and stable places where he could realized his ideological and conscious purpose to him. So, I confirmed that his Hansi · Sijo · Gasa at the places were being the peak of his literary world. There were being places to exchange of the pure comradeship and nature love among Sarim(Confucian scholars) under Song Soon. In force of having this placeness, the places became the origin of Honam Gadan(musical society).

In particular, the Myeonangjeong was the place where 30 years' extreme affection of Song Soon had got results, where his life and experience had etched, so he individually dreamed of being a place of consolation and hope and where had have a meaning of self-contemplating and recovering tranquility. He described the absolutely harmonized nature world without an

anxiety, frustration and skepticism and embodied the 'Nature' as Song Soon's sense of place into an aspect of reaching to the peak in <Myeonangjeong Ga> which is evaluated as the best work of his naturalistic aesthetics. The 'Nature' in <Myeonangjeong Ga> is no less than a acme of the self-esteem and pure pleasure, the composure and philosophical view of life, self-pleasure reaching after self-contemplating and recovering tranquility. Being on everybody's mouth over the times, cult for Song Soon's veiled incision and character is due to the existence of Damyang and Myeonangjeong where he could always go back to. When he was in pain or did not match the reality, there were the returning home(propping places of mind) 'Damyang' and 'Myeonangjeong' and the 'Nature' which is the peak of everything.

Key words : placeness, Damyang, Myeonangjeong, Nature, Propping Place of Life, Self-contemplating, Recovering Tranquility, Composure, Philosophical View of Life, Self-esteem, Self-pleasure

김은희

소속: 덕성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주소: 서울 도봉구 쌍문동 419 덕성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화: 010-3761-8656

메일: ehkim@duksung.ac.kr

이 논문은 2013년 2월 28일 투고되어
2013년 4월 5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3년 4월 8일 게재 확정됨.